

해방 이후 남북 의학교육체계의 성립과 발전

— 이용설과 최명학의 생애와 의학인식을 중심으로

신 규 환*

[초 록]

이용설과 최명학은 해방 전후 임상의학(정형외과)과 기초의학(해부학) 분야에서 남북의 의학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이하 세브란스의전)를 졸업했고, 3·1운동과 YMCA(기독교 청년회) 활동에 참여했으며, 세브란스의전에서 교수생활을 하다가 1940년대에는 그들 모두 서울과 함흥에서 외과의원을 개원하여 평범한 개업의의 길을 걸었다. 해방 이후 그들은 공통적으로 남북한 의학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8·15 해방으로 남북이 분할되면서 그들은 각자가 위치한 곳에서 일제로부터 치안과 행정 등을 이양받기 위해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이용설은 건국준비위원회 위원과 건국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미군정 초대 보건후생부장으로 취임하였다. 좌우익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미군정의 보건책임자로서 이용설은 우익의 보건의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연구조교수

주제어: 이용설, 최명학,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의료상업화, 의료국영화, 사상통제
Lee Yong-sul, Choi Myung-hak,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Medical Commercialization, Nationalization of the Medical System, Thought Control

체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후 1948년 9월에는 세브란스의과대학 학장에 취임하여 남한의 대표적인 의학 교육기관의 수장이 되었다. 최명학은 함경남도인민위원회의 부위원장이자 보건국장으로서 함경남도 보건위생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945년 11월 함흥의 학전문학교 재건을 담당하게 된 이후에는 의학교육에만 전념하였다. 좌우대립의 심장부에서 보건행정을 책임졌던 이용설은 우익 보건행정의 이론가이자 실천가의 삶을 살았고, 최명학은 교육자로서 교육행정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교육행정가로서 두 사람의 활동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세브란스의과대학 학장으로서 이용설은 비교적 인적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교수 충원과 시설보완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았다. 반면 함흥의과대학 학장으로서 최명학은 극심한 인재난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나마도 자신을 포함한 교수진들에 대한 관계 당국의 혹심한 사상통제와 검열을 지켜봐야 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용설과 최명학은 의료국영화를 이상적인 의료체제로 간주하였으며 의료상업화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용설과 최명학의 의료국영화에 대한 지지는 최응석과 같은 좌익진영 주류의 의료국영론과는 다른 내용이었지만, 남북의 이념대립 속에서 각각의 체제가 요구하는 의학교육 체계의 상에 일정 부분 적응해 나갔다.

1. 머리말

해방 이후 남과 북의 의학분야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이용설(李容高: 1895-1993)과 최명학(崔明鶴: 1898-1961)이라는 의학자가 있다. 이용설과 최명학은 세 살 터울로 평양과 함흥 등지에서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기독교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랐으며, 선교사들과의 친분으로 세브란스병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여 일제로부터 고초를 당하기도 했다. 그들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이하 세브란스의전)를 졸업한 선후배로 1930년대 세브란스의전에서 임

상의학(정형외과)과 기초의학(해부학) 분야를 개척하며 교수생활을 함께 했다. 둘 다 교수생활을 접은 후인 1940년대에는 서울과 함흥 등지에서 외과의로 개원의 생활을 했다. 해방 이후 남북이 갈라지면서 남한에 남아있던 이용설은 미군정 초대 보건후생부장, 국회의원, 세브란스의과대학 학장, 병원장 등으로 정계와 학계에서 활약했으며, 최명학은 함경남도인민위원회의 부위원장, 보건국장 등을 거쳐 함흥의과대학 학장, 의학과학원 원사 등 북한의 대표적인 의학자로 활동했다.

이용설과 최명학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 근대인물사나 한국의학사 연구를 통해 그들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글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¹⁾ 그러나 그 내용은 대부분 각 인물의 일대기를 나열한 것에 그치고 있다. 일제시기 한국인이 의학교육을 마친 후 일정한 연구경력을 갖추고 교수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나 행정가로 성장한 사례는 더더욱 많지 않았다.²⁾ 이용설과 최명학은 일제시기 3·1운동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직후기 남북한을 대표하는 의학자로서 한국 의학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주목된다.

그들의 인생행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세브란스의전에서의 교육경험은 중요한 자산이자 의학인식의 기초를 제공했다. 세브란스의전은 제중원 의학교 시기의 영미의학, 세브란스의전 시기의 교과연합의학, 해방 이후 세브란스의과대학 등의 계보를 형성하면서 알렌과 에비슨 등에 의한 선교의료의 전통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³⁾ 특히 해방과 분단은 세브란

1) 대표적으로 박형우·여인석(1992), 『해부학자 최명학』, 『의사학』 1-1; 이원규(1999), 『하늘은 아신다: 여천 이용설』, 서울: 현존사; 신유섭·신재의·유형식(2014), 『여천 이용설의 의료계몽과 학술활동』, 『연세의사학』 17-1; 신규환·박윤재(2015), 『제중원 세브란스 이야기』, 서울: 역사공간.

2) 김근배(2014),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의사되기: 해방 직후 북한의 의과대학 교원들을 중심으로』, 『의사학』 23-3, p. 457.

3) 의료선교가 ‘의료를 수단으로 하는 선교’라는 의미로 선교에 강조점을 둔다면, 선교 의료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는 의미로 의료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선교

스의전 출신들이 남과 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학창시절과 교수생활을 함께 했던 두 사람은 해방 이후 남북분단을 계기로 서로 다른 길을 모색해야 했다. 두 사람의 생애와 의학 인식에 관한 연구는 해방 이후 남북한의 대표적인 의학자의 행로를 이해하고, 남북분단을 계기로 20세기 한국의 의학교육체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인물들의 생애와 사상을 고찰할 때 가장 토대가 되는 자료 중의 하나는 이력서 등 자전적 서술들이다.⁴⁾ 이용설은 1977년 8월에서 10월 까지 『한국일보』에 총 40회에 걸쳐 「나의 이력서」를 게재하였고, 적지 않은 자전적 기록과 회고담 등을 남겼다. 반면 해방 후 북한에 남아 있던 최명학에 대한 자전적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 최근 해방 후 북한 의과대학 교원들의 이력서와 자서전이 발견되어 이를 활용한 의학사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전쟁시기 북한에서 노획된 이 문서들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문서군(RG242)에 보관되었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 사료관에 수집되어 있다. 최명학의 이력서와 자서전은 국편에는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조사서와 자필 이력서가 NARA에 소장되어 있다. 북한 의과대학 교원들의 이력서와 자서전은 대부분 해방 직후 교원 임명 당시에 작성되었다. 그것과 달리 최명학은 임명 당시에 작성한 이력서와 자서전이 없고, 교장과 학장으로 재직 중에 작성된 조사서와 자필 이력서가 존재한다. 자필 이력서와 회고담 등은 거시사가 간과하기 쉬운 촘촘한 여백을 아래로부터 복원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긴 하지만, 기록을 남긴 자가 처한 현실이나 개인적 관점

의료는 기독교적 종교성과 의료적 과학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졌다. 이에 대해서는 여인석(2016), 「한국 근대 선교의료기관의 형성과 성격」, 『한국 근대의학의 탄생과 국가』(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편), 서울: 역사공간, pp. 310-311.

- 4) 실제로 이용설의 손자 이원규(1999)가 엮은 『하늘은 아신다: 여천 이용설』은 1977년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된 「나의 이력서」를 근간으로 작성된 전기이다.

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누락될 여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력서와 같은 개인기록은 가능한 한 충실한 사료비판을 전제로 역사적 사실에 근접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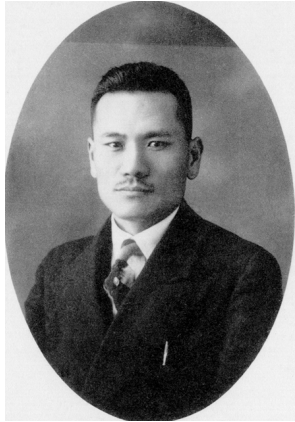
2. 3·1운동과 세브란스에서의 경험

2.1. 이용설의 3·1운동 참여와 사회계몽운동

이용설은 1895년 평안북도 희천(熙川) 출생으로 평양 장대제교회의 장로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독실한 기독교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이용설은 평양에서 선교사들이 세운 승덕소학교와 승덕중학교를 졸업하고 숭실전문학교에 다녔다. 숭실전문학교 2학년 재학 중인 1915년 의대 진학을 계획한 이용설은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 교장을 직접 만나 의사가 되고 싶다는 뜻을 전한 후 곧바로 세브란스연합의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1919년 졸업을 앞둔 이용설은 선교사 및 목사들과의 친분으로 국내외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세브란스의전 YMCA(기독교 청년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의학생들의 선교활동과 사회운동을 주도해오고 있었다. 3·1운동 전야의 이용설은 YMCA의 인맥과 연계되어 학생들과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3·1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⁵⁾

3·1운동 당시 이용설은 세브란스의전 YMCA의 회장직은 마친 상태였지만, 세브란스의전 대표자격으로 만세운동을 위한 대표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학생동원의 책임을 맡아 가두시위를 진두지휘하였다. 이용설은 이갑성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를 대구, 마산, 군산 등지로 배포하

5) 이원규(1999), pp. 14-32.



[사진 1] 세브란스의전 교수
재직시절의 이용설

는 책임을 졌다.⁶⁾ 학생들이 주도했던 3월 5일 만세시위 이후 일본경찰의 검거열풍이 일자 이용설은 중국 망명 길에 올랐다. 이용설은 3·1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1938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⁷⁾

이용설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동료들은 대개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정도를 선고받았다. 이용설은 1920년 북경협화의학원(北京協和醫學院, PUMC)에 진학하여 수련의 생활을 하던 중 북경에서 에비슨 교장을 만났다. 1921년 에비슨 교장은 이용설의 귀국을 제안했고 경무총감과의 담판을 통해 수배자인 이용설의 무사귀환을 보장받게 되었다. 당시 세브란스병원 외과에는 러들로(Alfred Irving Ludlow: 1875-1961) 교수와 고명우(高明宇: 1883-1951) 등이 있었는데, 1922년 8월부터 1924년 8월까지 이용설은 그들과 함께 외과를 주도해 나갔다. 1924년 9월, 이용설은 시카고 노스웨스턴 의대에 편입하여 MD학위를 취득하였고, 정형외과학을 수련하였다. 1926년 9월, 이용설은 세브란스의전 외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1937년 7월에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약리학교실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용설은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되면서 1940년 1월 교수직을 사임하고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서 개원의로 활동했다.⁸⁾

1920-30년대 세브란스의전 재직시절의 이용설은 교육 및 진료활동 이외에도 연구와 사회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먼저 연구분야에서는

6) 「47인 예심결정서(5)」, 『동아일보』 1920.4.10.

7) 「李容高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覆審法院)』 1940.8.21, 관리번호CJA0000588.

8) 이원규(1999), pp. 35-89.

1929년 하와이에서 열린 범태평양외과학회(The Pan-Pacific Surgical Conference)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아메바성 간장농양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인이 세계학회에 연구성과를 보고한 효시였다.⁹⁾ 이 내용은 1931년 한국어 학술지인 『조선의보』에 「간장농양(아메바성)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그밖에도 유문협착증, 폐농양의 백신용법, 경련성 사경증 등에 관한 논문을 『조선의보』에 발표하였고, “Tuberculous Joint Disease in the Korean”를 *China Medical Journal* 44 (1930)에 발표하기도 했다.¹⁰⁾

사회운동 분야에서 이용설은 주로 의학 및 위생지식을 대중에게 선전하는 사회계몽운동에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 의학지식을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한 활동은 대중강연과 신문잡지에 대한 기고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대중강연은 세브란스의전 학생 YMCA가 주관한 통속의학강연회가 중심이 되었고, 의학 및 위생지식은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동광』, 『시조사』, 『기독신보』 등 다양한 신문잡지에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두창, 성홍열, 장티푸스 등 급성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성병과 공창, 결핵 등 만성전염병에 의한 사회문제, 각종 질환 및 민간요법과 한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과 사회문제를 다뤘다. 특히 민간요법과 한의학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¹¹⁾ 이용설은 1925년 정식으로 흥사단 단우가 되었고,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기본 정신을 함양하여 독립정신과 인격수양을 위한 흥사단 활동에도 주력했다. 결국 일제가 흥사단의 서울지부격인 수양동우회가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군대를 양성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죄목으로 주모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용설도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결국 이용설은 교수직을 사임하였다. 세브란스의전에서 사임한 이후인 1940년 1월, 그는 견지동에 ‘이용설 외과의원’

9) 「세전 통속의학강연 연재해설」, 『동아일보』 1935.11.19.

10) 신유섭·신재의·유형식(2014), pp. 9-29.

11) 신유섭·신재의·유형식(2014), pp. 29-30.

을 개원하였다.¹²⁾

이용설의 ‘나의 이력서’상에 누락된 내용 중의 하나는 1940년대 친일 행위와 관련된 사항이다. 3·1운동 참가, 수양동우회 사건 등 항일운동 경력으로 인해 그는 일제로부터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 출소 이후 이용설이 종로경찰서 인근에 ‘이용설 외과의원’을 개원하자 고등계 형사들은 수시로 찾아와 창씨개명을 요구했다. 그는 고등계 형사들에게 “알다시피 의사라는 직업은 이름으로 먹고 사는 것 아니냐.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것은 의사로서 알려진 이용설이란 이름 때문인데 그 이름을 바꿔 놓으면 병원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고 설득하여 끝내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¹³⁾ 그러나 이용설은 친일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일제의 대동아전쟁에 대하여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전쟁 말기 일제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2.2. 최명학의 3·1운동 참여와 연구 및 사회운동

최명학은 1898년 함경남도 함흥군 함흥면 중촌리에서 최봉익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13년 함흥영신보통학교, 1917년 함흥영생학교 등 선교계통의 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그는 캐나다 장로교가 설립한 함흥 제혜병원 서기로 근무하였다. 캐나다 장로교의 선교학교를 거쳐 선교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최명학은 세브란스의전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함흥지역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함흥지역 만세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¹⁴⁾

12) 이원규(1999), pp. 74-87.

13) 이원규(1999), p. 88.

14) 『騷擾事件의 後報, 함경남도 咸興, 주모자 사십 일명 기소됨』, 『매일신보』 1919.3.31.; 『함흥소요공판, 사십일명판결』, 『매일신보』 1919.4.25.; 『咸興獨立運動』

최명학의 학창시절 이래로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는 YMCA와 관련된 활동이다. 함흥영생학교 시절 시작된 그의 학생 YMCA 활동은 졸업 이후인 함흥 제혜병원 재직시절에도 계속되었다. 최명학이 3·1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함흥 YMCA 활동으로 인한 것이기도 했다. 최명학의 YMCA 활동은 출감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21년 5월, 그는 함흥 YMCA(회장 모학복)가 주관하는 음악회에서 ‘어여쁜 여인이 고풍따지 싫어’라는 독창을 부르기도 했는데, 음악회가 열렸던 신창리 교회당에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¹⁵⁾

1922년 4월, 최명학은 세브란스의전 별과(別科)에 입학하였다. 당시 세브란스의전은 오궁선(吳兢善: 1878-1967) 학감의 제안으로 다양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자 본과 이외에 연구과, 별과, 선과(選科) 등을 설치한 바 있다. 별과는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본과에 편입해야 정식 의사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었다. 1925년 2월, 최명학은 전문학교 입학검정시험에 합격하여 본과에 편입한 후, 1926년 3월에 졸업하였다. 그는 졸업 후 해부학 교실 조수로 임명되었다. 당시 세브란스의전은 교수요원을 선발하여 해외 각국에 유학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최명학은 기초학교실 교수요원으로 선발되었다. 1927년 4월, 그는 일본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해부학교실 연구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오가와(小川) 교수의 지도하에 발생학 및 조직학을 연구하였다. 1931년 1월, 그는 귀국하여 모교의 강사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조교수로 승진하였다. 그의 강의는 유창한 영어발음과 단정한 나비넥타이로 유명하였다. 1932년 7월 일본 교토 제국대학에서 귀의 발생에 관한 실험발생학적 연구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것은 한국 최초의 해부학 박사학위이자 세브란스 출신으로는 일본에서 받은 최초의 의학박사학위이기도 했다.¹⁶⁾

記』, 『독립신문』 1920.4.1.

15) 『함흥청년회음악회』, 『조선일보』 1921.5.24.

16) 세브란스교우회(1932), 『세브란스교우회보』 16, p. 12; 박형우·여인석(1992), p.

“박사논문이 통과된 것은 기쁘다는 것보다도 사회적 책임이나 학교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운 것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순연한 과학자로서 일생을 바칠 작정이다.”¹⁷⁾



[사진 2] 세브란스의전 교수
재직시절의 최명학

1933년 모교의 해부학 주임교수가 된 최명학은 위의 소감과 같이 실제로 발생학, 조직학, 체질인류학 등의 연구에 전념하여 『조선인의 체형학적 연구』, 『귀의 발생에 관한 새로운 사실』, 『조선인의 머리형태·부피에 대하여』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최명학은 해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발생학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였으며 체질인류학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여러 편의 논문을 영문잡지인 *Folia Anatomica Japonica*에 발표하였다. 최명학은 당시 세브란스의전 병리학 주임교수로서 기초연구를 주도하던 윤일선 등과 함께 학교의 연구활동을

주도하였다. 최명학은 여러 차례 일본해부학회에서 그의 연구업적을 발표하였는데, 그의 다년간의 업적이 인정되어 1934년에는 일본해부학회의 평의원으로 추대되었다. 이는 세브란스의 해부학 수준이 일제가 인정하는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¹⁸⁾

최명학은 연구 이외에도 학교의 여러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89; 신규환·박윤재(2015), p. 333.

17) 『世專 崔明鶴氏 博士論文通過 금년 三十四세의 독학자 耳帶外 胚葉等 論文』, 『동아일보』 1934.4.20.

18) 신규환·박윤재(2015), p. 334.

1931년 3월 학교의 생도감으로 선임된 데 이어,¹⁹⁾ 교우회 간사, 의학구락부 서기 등을 역임하였으며 세브란스 후원회 이사, 세브란스의전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였다. 최명학은 통속의학강연회와 같은 사회계몽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통속의학강연회는 세브란스의전 학생 YMCA 문예부가 주관하였다. 이용설과 최명학은 주요 강연자로서 제1회, 제2회, 제4회에 함께 참여하였고, 제7회에는 최명학, 제8회에는 이용설이 각각 참여하였다. 이 강연회는 1930년부터 1937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사회적으로 상당한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회 (1930년 11월 2일 저녁6시, 정동교회 예배당)

심호섭: 신경쇠약증과 그 요법

최명학: 인류학상으로 본 인종문제

이용설: 외과 수술의 발전

제2회(1932년 11월 22일, 중앙기독교청년회관)

최명학: 성 결정에 관하여

이영준: 화류병에 대하여

심호섭: 신경쇠약

이용설: 복통(腹痛)에 대하여

제4회(1933년 11월 17일, 중앙기독교청년회관)

최명학: 내세의 인간

이용설: 병자로서의 필요한 상식

이영준: 성 및 성병에 대하여

19) 『世醫專學監으로 具永淑氏 就任 홍석후 박사는 금번에 사임 學生監엔 崔明學氏』, 『매일신보』 1931.3.2.

제7회(1935년 6월 4일, 중앙기독교청년회관)

최명학: 인간

오한영: 스포츠의 생리

이영준: 불로장생과 갱소년법(更少年法)에 대하여

제8회(1935년 11월 19일, 중앙기독교청년회관)

이용설: 현대의학의 경향

김명선: 감정과 소화

최동: 의학과 법률

世專 第二回 通俗醫學講演會

十一月廿二日(火)午後七時 鍾路基督青年會館

演題와 演士

性決定에 關하여	花柳病에 對하여	神經衰弱
醫學博士 崔明鶴	醫學博士 李榮俊	醫學博士 沈浩爽
醫學博士 李容島	醫學博士 李容島	醫學博士 李容島

腹痛에 對하여
音樂 申 잇 도

場內整理料五錢

主催 世專學生基督青年會
後援 東亞日報社學藝部

[사진 3] 제2회 세브란스 이전 통속의학강연회 포스터(『동아일보』 1932년 11월 19일)

앞서 본 박사학위 취득 소감에서 최명학은 해부학자로서 교육과 연구에 평생을 매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의 약속은 오래 가지 못했다. 1934년 교내 입시비리 사건이 발생하자 최명학은 이를 폭로하고 관련자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관련자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사태가 곧 수습되는 듯했으나, 관련자들이 태도를 바꾸어 피의사실을 갑자기 부인함에 따라 사태는 혼란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내막을 폭로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최명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최명학의 자필 이력서에는 1942년 3월 세브란스의전을 사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⁰⁾ 그러나 교내 입시비리 사건이 발생하여 사직하는 데까지 8년이 걸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실제로 최명학이 학교 당국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은 것은 1936년 8월초였다.²¹⁾ 실제 교수직을 사직한 것은 1936년 하반기이거나 늦어도 1937년 상반기였을 것이다. 왜냐면 1937년 6월 ‘조선 외과계의 거성’ 최명학이 함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²²⁾ 그렇다면 사직 후 1942년 함흥에서 최명학외과의원을 개업하기까지 6년 여 동안에 그는 어떠한 일을 했으며, 어떠한 이유로 이 기간에 한 일이 그의 이력서에서는 빠지게 되었을까?

최명학의 자필 이력서 중 추가로 더 누락된 내용 중의 하나는 3·1운동에 참가하여 옥고를 치른 일과 함흥 제혜병원에서 일한 경력이다. 함흥의 의료선교는 1903년 캐나다 장로교 의료선교사인 케이트 맥밀런(Kate McMillan: 1868-1922, 한국명 맹미란) 여의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1913년 5월, 맥밀런은 40병상 3층으로 된 함흥 제혜병원(Hamheung Canadian Mission Hospital)을 완공하였다. 맥밀런 재임시기에 함께 활동

20) 함흥의과대학(1948), 『최명학 교원 리력서』.

21) 『사직권고의 통고를 최박사는 분연 일축』, 『조선중앙일보』 1936.8.6.

22) 『함흥 제혜병원, 삼만원 드려 增築』, 『동아일보』 1937.6.15.

했던 한국인 의사는 4명으로 이들 중 3명은 맥밀런의 조수로서 활동하다가 의사가 된 경우였다. 모학복은 조수로 6년, 의사로 10년간 맥밀런을 도왔다. 그는 함흥 YMCA 회장을 지낼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밖에 유철석과 박성호는 함흥 제혜병원을 신축하던 시기에 조수로 일했던 사람들로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한 후 계속해서 맥밀런을 도왔다. 최명학은 1917년부터 함흥 제혜병원의 서기 겸 제약사로 일하면서 모학복이 주도하는 YMCA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한국인 의사들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최명학은 유철석이나 박성호처럼 세브란스의전에 진학 후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최명학은 특히 박성호와는 동년배로 의기투합하여 3·1운동에도 함께 참여하여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맥밀런은 선교 본부에 여의사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했고, 1921년에서야 적임자를 찾을 수 있었다. 캐나다 동부 출신인 플로렌스 머레이(Florence J. Murray, 한국명 모레리, 모리, 머리)는 밴쿠버에서 출발하여 고베, 부산, 서울을 거쳐 1921년 여름 함흥에 도착했다. 1922년 맥밀런이 장티푸스로 사망함에 따라 1923년 머레이가 함흥 제혜병원의 원장이 되었다. 머레이는 재임기간 동안 병상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선에서 가장 절실하게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이 결핵이라고 판단하고, 결핵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20병상 규모의 전염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함흥 제혜병원 부속 간호학교를 설립하여 간호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머레이 재임시기에 활동했던 한국인 의사는 9명으로 그중 7명이 세브란스의전 출신이었다.²³⁾ 그중 고병간(高秉幹: 1900-1964)은 1925년 세브란스의전 졸업 후 1927년 함흥 제혜병원에 부임하였고, 1936년 동경제대 유학 후 세브란스의전 외과에 부임하게 되었다. 고병간이 함흥 제혜병원에서 세브란스의전으로 이직하자, 1936년 갑작스럽게

23) 허윤정·조영수(2015), 「일제하 캐나다 장로회의 선교의료와 조선인 의사: 성진과 함흥을 중심으로」, 『의사학』 24-3, p. 638.

교수직을 사임하게 된 최명학은 외과에 빈 자리가 생긴 함흥 제혜병원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3·1운동 참가는 항일투쟁을 영웅시하는 북한사회에서도 자랑스런 기록이다. 그러나 최명학의 3·1운동 참여는 기독교 신앙과 선교병원에서의 활동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해방 이후 북한은 종교를 포용하는 정책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회유와 강압을 함께 사용했고, 한국전쟁 이후 종교 말살정책을 본격화했다.²⁴⁾ 해방 이후 북한사회에서의 반기독교운동과 탄압정책을 고려할 때, 최명학은 함흥 제혜병원에서의 활동과 3·1운동에 대해서 함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 해방 이후 의료국영화 인식과 의학교육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이용설은 초대 보건후생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우익의 보건의료를 대표하는 인물로 활동했다. 이용설은 1947년 5월 『조선의학신보』에 『보건후생행정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였는데, 의료국영론의 실시를 통해 사회주의 보건의료체제의 건립을 주장하던 최응석과 대립하였다.

전 조선에 정규의사가 3천여 인이니 인구 1만인에 의사 1인쯤이다. 그러나 이 의사들도 다 완전한 시설을 가진 이들이 아니므로 중하고 급한 병이 발생하였을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만한 병원수라는 것은 매우 소수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에서도 의료국영론을 제창하는 이가 있는 모양이나 의료의 현상으로 보아 당분간 국영은 극히 곤란할 줄 안다.

24) 장운철(2005), 「북한 공산정권에 의한 함경도 교회의 피해: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종전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pp. 4-9.

그 이유는 첫째, 국민의 의료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담당할 만한 시설이 없다. 이런 시설이 없이 국민에게 의료납세를 부가시킬 수 없다. 둘째, 시설이 부족한 것과 같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 특히 전문과목을 담당할 만한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현재 도립병원 20여 개소(남조선)에 2·3년 정도의 전문 수학한 의사를 배치하고자 해도 오히려 부족하다.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거대한 비용을 들여 면마다 종합병원 1개소씩을 신설한다 가정하더라도 배치할 의사가 없음은 상상하기 쉬운 일이다. 그러므로 당분간 인재를 양성하고 시설을 증가하여 후일을 기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급하여도 우리 이상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 사회 시책이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당분간 급선무는 있는 기관, 예를 들면 도립이나 시립병원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겠고 일년에 수 개소씩이라도 종합병원을 신설하는 동시에 전문의 양성에 힘써야겠다.

그리고 우리 의학계 발전에 큰 암초는 설비 불완전한 개인병원의 난립이다. 이 시설 부족한 소규모 의사는 환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부단히 학술 및 기술의 향상을 요하는 의사들이 일반개업을 시작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까지 망각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를 교정함이 무엇보다도 조선에 의료를 향상시키는 첫걸음이 될 줄 안다. 바라건대 민간에서 자선사업을 목표로 종합병원이 곳곳에 많이 설립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소규모 단독 개업의사보다 이 종합병원에 연락하는 이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이로써 현재 개업제도의 단점을 시정할 수 있을 줄 믿는다.²⁵⁾

이용설은 1920년대 미국유학의 경험, 1930년대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경험, 1940년대 개원의로 활동한 경험 등을 통해 한국의료의 문제점과 한국사회에 필요한 개선방향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용설은 의료시설과 전문과목 담당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국영론은 시기상조라

25) 이용설(1947), 「보건후생행정에 대하여」, 『조선의학신보』 2, p. 17.

고 주장하였으며, 개원의의 난립 등 의료상업화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했다. 우익의 보건의료를 대표하는 이용설이 의료국영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그는 의료국영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과 전문과목 담당의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다. 해방 이후 우익진영에서도 의료국영화의 지향은 의료상업화의 극복과 함께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했다.²⁶⁾ 이용설이 보다 시급하게 여긴 문제는 개원의의 난립과 의료상업화의 극복 문제였다. 흥미롭게도 이용설은 의료상업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민간에서 종합병원을 많이 건설하여 종합화·대형화를 추진하고, 의사양성 확대, 해외유학 알선, 자격시험 강화 등 미국식 의료제도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용설의 병원 종합화·대형화 주장은 의료국영론 만큼이나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설이 종합병원을 통해 병원을 종합화·대형화하자고 주장한 이면에는 의료상업화의 극복뿐만 아니라 의료국영론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설의 의학인식과 관련된 중요한 암시 중의 하나는 그가 단순한 의료인력의 부재가 아닌 ‘전문과목 담당의사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즉 그는 기존의 의학전문학교 위주의 임상 의사 양성에서 벗어나 6년제 의과대학과 전문의제도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1946년 미군정 문교부 고등교육국은 기존의 제국대학과 전문학교에서 운영하던 학년제, 강좌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학점제, 학과제로 전환시켰으며, 기존 4년제 의학전문학교를 폐지하고 6년제 의과대학 개편안을 추진하였다.²⁷⁾ 이러한 움직임은 전문과목 담당의사를 양성할 필요를 강조했던 이

26) 여인석·이현숙·김성수·신규환·박윤희·박운재(2012), 『한국의학사』, 서울: 의료정책연구소, pp. 309-311; 신영전·김진혁(2014), 『최응석의 생애』, 『의사학』 23-3, p. 370, p. 493.

27) 강명숙(2002), 『미군정기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와 그 의미』, 『한국교육사학』

용설의 의학인식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이용설은 미군정의 초대 보건후생부장의 임기를 마친 후 1948년 9월 세브란스의과대학 제5대 학장으로 선임되었다. 해방 이후 각 의과대학이 봉착한 최대의 문제는 일본인 교수인력의 외부 유출과 교수 충원 문제였다. 세브란스의과대학은 상대적으로 인력충원에 큰 곤란을 겪지 않았다. 다른 대학과 달리 세브란스의대 각과 주임교수는 이미 한국인들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년 전 6년제 의과대학으로 승격된 세브란스의과대학은 예과 정비와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를 위해 이용설은 연희대학교 이공대학에 예과를 설치하여 예과교육의 내실을 기하게 했다. 시설 확충 및 기자재 도입 등은 아치볼드 플레처(Archibald G. Fletcher: 1882~1970, 한국명 별리추) 박사 등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도왔다. 이용설은 당시 물자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동인 에 비스관을 완성할 수 있었다.²⁸⁾

해방 직후 좌익 진영의 의사들은 의료국영론을 제기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도쿄제국대학 의학부 출신으로 좌익의 의료국영론을 이끌었던 최응석(崔應錫: 1914-1998)을 들 수 있다. 최응석은 1914년 평양 출신으로 평양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였으며, 1937년 도쿄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다. 그는 내과 수련의를 거쳐 1943년 도쿄제국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4년 그는 일본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1945년 해방과 함께 귀국하였다. 1945년 9월부터 그는 경성대학 의학부 제2내과 교수로 일하였다. 그는 ‘조선과학자동맹’, ‘민주주의민족전선’ 등 좌익진영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1946년 7월 미군정은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을 추진하였고, 최응석 등 좌익진영은 의학교육을 4년제로 유지, 증강하여 단기의사를 양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대안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최응석 등 좌익진영의 교

24-1, pp. 88-96.

28) 이원규(1999), pp. 95-98.

수들은 서울대를 떠나야 했다. 1946년 10월, 최응석은 김일성대학 총장의 초청을 받아 그해 11월 평양으로 갔다. 최응석은 김일성종합대학 의학부 부학부장 겸 병원장, 북조선보건연맹 위원장, 의학과학원 원장 등 의학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활동했다.²⁹⁾

최응석은 해방 직후 발표한 일련의 기고문을 통해 자신의 보건의료체계 구상을 밝혔다. 그는 진정한 과학적 의학은 치료의학과 사회의학의 변증법적인 통일임을 주장하면서 예방의학, 집단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응석의 보건의료체계 구상의 핵심은 의료국영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응석은 1947년 5월 『조선의학신보』에 이용설의 「보건후생행정에 대하여」에 뒤이어 「현단계 보건행정의 근본적 임무」라는 글을 나란히 게재하여, 의료국영론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전면적이고도 엄격한 의료국영화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유연한 의료국영화를 위해 국영병원, 협동조합병원, 개인개업의 등을 세 축으로 하는 의료국영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은 기존의 관립병원(9개), 공립병원(64개), 일본소유병원(74개) 등 총 145개 병원을 중심으로 각 군에 1개의 종합병원인 인민병원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인력의 대량 양성을 위해 의전을 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중등정도의 보건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산파, 보건부, 방역기술자 등 보건의료인력을 대량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⁰⁾

협동조합병원은 노동자 자신의 보건을 위해 노동자 자신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병원을 말한다. 노동자 자신이 의료관계자의 협력을 받아 직접 관리하는 병원을 말하는데, 협동조합병원에 대한 강조는 사회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었다. 실제로 소련과 북한에서 협동조합병원은 국가와 당에 귀속되어 소멸되는 과정을 거쳤다. 최응석의 의료국영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개업의의 역할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영리적 개인개업의는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겼지만, 유연한 의료국영화를 위해

29) 신영전·김진혁(2014), pp. 471-481.

30) 최응석(1947), 「현단계 보건행정의 근본적 임무」, 『조선의학신보』 2, p. 19.

서는 모든 개인병원을 폐쇄하고 개인개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민이 무상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하에 개인개업의가의 의료의 인민화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³¹⁾

해방 이후 최응석이 경성대학 의학부, 김일성대학 의학부, 평양의학대학 등에서 좌익 진영의 의료국영화 구상을 위해 이론가로서 활동했다면, 고향인 함흥에서 개원의로 활동하던 최명학은 최응석과 같은 의료국영론을 구체화하는 데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다만 최명학 역시 이용설과 마찬가지로 의료상업화의 극복과 의료국영화의 지향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의술은 인술이라는 의미에서의 醫者는 仁者가 되어야만 할 것이나 사회상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인술 또는 인자답게 보여지지 않는 느낌이 적지 않아 인술 인자의 행적이 업무화하여 영업화하는 점이다. ...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할 점을 탐구함은 공론이 아닐 것이다. 필자의 우견을 들면 이러하다.

첫째로 의자의 결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경제관념이 없어야 할 「인자」의 머리에 경제관념이 생기는 것 즉 황금에 눈이 어두어지는 것. 둘째로는 의자는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망에 있어 우대를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생활안정을 얻게 되므로 경쟁자가 많아져서 의업에 경쟁이 생기게 되는 것. 셋째로 의자로서 서로의 도덕을 무시하고 자기 자만의 생각과 교만한 생각에서 동업자간 악평을 하여 제삼자에게 인격적 멸시를 느끼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사회의 그릇된 생각을 첫째 의자의 사례는 물론 교환하던 봉건시대 유물과 같이 여기는 점이다. 즉 치료비나 약값은 의례히 면발정산이나 외상으로 하자는 관념, 결국 청산할 때에는 감액을 하는 악습이다. 이런 습관은 자연 의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더욱이 목숨이 경각인 환자가 시술 여하로 사선에서 갱생되고 서로 치료비는

31) 여인석·이현숙·김성수·신규환·박윤형·박윤재(2012), pp. 309-311; 신영전·김진혁(2014), pp. 488-499.

의상 운운하다가 할인 운운 나중에는 지불거절까지의 경우를 당하면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의약의 사례에 대한 잘못된 사회인식은 그 사회문명과 사회교육 정도 여하에 크게 관계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으로는 선진문명국과 같이 의료국영화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라고 하겠다.³²⁾

최명학은 의료상업화가 의료공급자의 황금만능주의와 과다경쟁, 의료소비자의 잘못된 지불관습 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최응석이 1930년대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1945년 11월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명학은 1940년대 초까지도 함흥 제혜병원 등 선교병원에서 활동하였다. 이 글은 선교병원 재직시기에 일반 개원의의 관점에서 의료상업화와 의료국영론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최명학이 주장하는 의료국영론은 개업의의 소멸을 목표로 한 의료국영론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국가지원과 국가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1946년 4월 북한의 사상통제와 검열이 심화되던 시기의 조사서에서 최명학의 출신성분을 ‘소시민’으로 규정하고, 그의 사상적 경향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자아수련’이라고 작성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의료국영론은 최응석과 같은 좌익 측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³³⁾

해방 이후 최명학은 국가재건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건국준비위원회 함경남도 지부와 조선민족 함경남도 집행위원회 등에 편입되었다. 1945년 9월 조선민족 함경남도 집행위원회가 함경남도 인민위원회로 개명되었고, 최명학은 해방 초기부터 함경남도 지역의 행정과 치안 등의 인수와 관리 등에 관여하였다. 최명학은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겸 보건국장으로 활동했으며, 1945년 11월 함흥의학전문학교 교장으로

32) 최명학, 「인술과 사회」, 『조선일보』 1940.2.8.

33) 함흥의학전문학교(1946. 4), 「최명학 조사서」.

임명되면서 학교 재건과 의학교육에 몰두하게 된다.³⁴⁾

해방 직전인 1944년 개교한 함흥의학전문학교는 졸업생을 내지 못하고 해방을 맞았다. 교수진이 일본인으로만 구성되어 교수진도 없었고, 부속병원도 없는 상태였다. 타 지역에서도 의학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확충하려는 경향이 있어, 전문인력 유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었다. 1945년 11월, 북한당국은 함흥의학전문학교의 재건을 위해 의학계의 권위자이자 지역사회에서 명망을 갖춘 최명학을 교장에 임명했다. 1945년 말, 최명학은 교수진을 집중적으로 충원하였는데, 주로 함흥도립의원 소속 의사들과 함흥지역에서 활동하던 개원의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³⁵⁾

1946년 4월까지 총 21명(교양 2명 포함)이 교수로 임용되었다. 박사학위자는 4명(최명학, 리주걸, 김을성, 주민순)이었고, 대학 출신이 6명, 전문학교 출신이 13명이었다. 함흥도립의원 등에서 근무하던 인력이 9명이었고, 나머지 7명은 개원의 출신이었다. 이들의 직급은 교수 9명, 조교수 3명, 강사 7명이었다. 전공별로는 기초가 4명이었고, 임상이 15명이었다. 전반적으로 내과와 외과 인력이 부족하고, 적지 않은 분과에 전공자가 아예 없기도 했다. 게다가 어렵사리 충원한 인물들도 월남하는 등 함흥에서 교수진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³⁶⁾

1947년 3월, 북한 당국이 사상적 경향과 전문적 역량을 기준으로 교원 심사와 검열 등 대대적인 교원심사와 검열작업을 진행하면서 심사대상

34) 森田芳夫(1964), 『朝鮮終戰の記録』, 嚴南堂書店, p. 172.

35) 김근배(2015), 『북한 함흥의과대학 교수진의 구성, 1946-48: 사상성과 전문성의 불안한 공존』, 『의사학』 24-3, p. 716.

36) 대표적으로 1942년 12월 함흥 북부정에 동제의원을 개원한 전종휘를 들 수 있다. 전종휘는 1945년 10월,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교육국 교육부장 양인성의 요청으로 2학년 병리학강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남북이 대치하게 되고 38선이 폐쇄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낀 전종휘는 1946년 3월 월남했다. 김택중(2011), 『의사 전종휘의 생애와 사상: 한국 근대성의 한 초상』, 인제대학교 인문의학협동과정 의학박사논문, pp. 133-134.

25명(교양 7명 포함) 가운데 오직 4명만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가장 반동적으로 인물로 지목받은 경성제국대학 출신 3명을 제외하고 부족한 교수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교원심사가 끝난 1947년 4월 함흥의과대학의 교수진은 총 19명이었다. 박사학위자는 3명(최명학, 주민순, 박준)이었고, 대학 출신 7명, 전문학교 출신 12명이었다. 새로 9명이 충원되었으나 심사 탈락 등으로 교수진의 숫자는 최명학이 주도했던 교수진 숫자와 같았다. 그러나 이전 대비 내과와 외과가 강화되고, 위생학 분야가 보강되었다. 기초와 임상이 각각 5명과 14명이었고, 생리학, 병리학, 세균학, 의학학, 이비인후과학 등에는 교수인력이 아예 없었다. 반면 이전 대비 기초과 학과 정치사상 관련 교수인력은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³⁷⁾

1946년 8월, 북한의 고등교육 확장정책에 따라 함흥의학전문학교는 함흥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의과대학을 5년제로 결정하였다.³⁸⁾ 함흥의과대학의 신입생 정원은 160명이고, 학제는 5년제였으며, 학장은 최명학이었다. 이로써 함흥의대는 1946년 9월 성립된 김일성종합대학 의학부와 더불어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의 의학교육기관이 되었다. 이밖에도 북한당국은 1948년 9월 청진 의과대학을 설립한 데 이어, 1948년까지 6개의 의학전문학교 설립하였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 의학강습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하였다.³⁹⁾ 이는 의료국영론을 지탱하기 위한 다양한 인력 양성 방안이었던 셈이다. 1948년 10월, 북한은 국가학위수여위원회(위원장 김두봉)를 조직하였다. 논문심사 없이 박사 5명과 학사 7명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는데, 의학분야에서는 평양의대 장기려와 함흥의대 최

37) 김근배(2015), p. 726.

38) 북한에서 의과대학 6년제가 정착된 것은 1970년 이후의 일이며, 2002년 5년제와 6년제로 운영되던 의과대학을 4년제로 개편했다.

39) 박윤재·박형우(1998), 「북한의 의학교육제도 연구」, 『의사학』 7-1, pp. 66-67.

명학이 국가 박사학위를 받는 최고의 명예를 누렸다.⁴⁰⁾ 최명학은 1952년 과학원이 창립될 때 의학분야 유일의 원사이자 농학 및 의학부문 위원장으로 활약할만큼 북한 의학계에서는 최고의 명성을 누렸다.⁴¹⁾

4. 맺음말

이용설과 최명학은 일제가 청일전쟁으로 대륙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대한제국이 국권회복을 위해 자주적 국가건설을 위해 매진하던 시기에 평양과 함흥에서 태어났다. 평양과 함흥은 미 북장로회와 캐나다 장로회가 교육 및 의료선교를 시작한 곳이고, 일찍부터 기독교 선교를 통해 문명개화와 계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용설과 최명학 역시 기독교 신앙과 학교교육을 통해 신문물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게 된 것은 에비슨, 맥밀런 등 의료선교사들과의 개인적 친분 덕이었다. 미션스쿨에서의 다양한 경험 중 그들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 중의 하나는 YMCA 활동이었다. YMCA 활동의 목표는 기독교 전도를 위해 음악, 체육, 사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고, YMCA 조직과 활동은 각 지역의 사회계몽과 농촌봉사 활동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YMCA가 정치운동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YMCA는 3·1운동과 자연스럽게 결합되었다. 이용설과 최명학 역시 YMCA 조직을 통해 3·1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 3·1운동 참여는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용설은 체포를 피해 망명 중에 북경협화의학원과 시카고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등에서 정형외과를 수련하였다. 최명학 역시 세브란스의전을

40) 허윤정·조영수(2014), 『해방직후 북한 의학교육의 형성: 1945~1948』, 『의사학』 23-2, p. 260.

41) 『북한에 과학원 조직』, 『국민보』 1952.12.17.

졸업하고 교토제국대학 의학부에서 해부학을 공부하였다. 이들은 미국 의학과 일본의학의 수련을 통해 학자로서의 입지를 쌓았지만, 일제시기 세브란스의전에 교수로서 진입하거나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박사학위를 필요로 하였다. 일제시기 세브란스의전에서는 교과연합의 분위기 속에서 영미의학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도적으로는 일본의학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1930년대는 정형외과학과 해부학의 개척자들인 이들에게 최고의 전성기였다. 이용설은 세브란스의전의 외과학교실 주임교수로서, 최명학은 해부학교실 주임교수로서 교육과 연구 등을 통해 인생의 절정기를 함께 보냈다. 그들은 세브란스연구부와 학생 YMCA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학생 YMCA가 주관하는 통속의학강연회는 1930년부터 1937년까지 매년 한두 차례 거행되었는데, 이용설과 최명학은 거의 매년 함께 참여하면서 대중운동을 주도하였다.⁴²⁾ 청년시절의 YMCA운동은 의사가 된 이후에도 대중운동의 형태로 발현되었고, 이는 세브란스의전에서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운동의 경험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그들 모두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렸고 결국 그 사건들을 계기로 교수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40년대에는 그들 모두 서울과 함흥에서 외과의원을 개원하여 평범한 개업의의 길을 걸었다.

8·15 해방은 이들 모두에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남북이 분할되면서 그들은 각자가 위치한 곳에서 일제로부터 치안과 행정 등을 이양받기 위해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이용설은 건국준비위원회 위원과 건국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미군정 초대 보건후생부장으로 취임하였다. 좌우익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미군정의 보건책임자로서 이용설은 우익의 보건의료체제를 선전하고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1948년 9월, 이용설은 세브란스의과대학 제5대 학장으로 취임하

42) 박형우(201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역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pp. 81-83.

면서 의학교육에 헌신하였다. 반면 해방 직후 최명학은 함경남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보건국장으로서 함경남도 보건위생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1945년 11월, 최명학은 함흥의학전문학교의 재건을 책임지면서 의학교육에만 전념하였다.

이용설과 최명학은 세브란스의전 시절부터 학생 YMCA활동, 대중운동, 사회운동 등을 통해 실천적 지식인의 삶을 추구했다. 해방 전 기독교 신앙과 과학적 의학에 뿌리를 둔 세브란스의전에서의 교육경험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하여 학생 YMCA 활동과 3·1운동 참가, 해외 유학, 교수생활, 개업의 활동 등으로 나아가는 데 자양분을 제공했다. 그랬던 두 사람은 해방 이후 전혀 다른 인생행로를 걷게 되었다. 좌우대립의 심장부에서 보건행정을 책임졌던 이용설은 우익 보건행정의 이론가이자 교육행정가의 삶을 살았고, 최명학은 북한의 보건행정과 의학교육 책임자로서 교육행정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교육행정가로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환경과 맞닥뜨렸다. 세브란스의과대학 학장으로서 이용설은 비교적 인적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교수 충원과 시설보완을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 함흥의과대학 학장으로서 최명학은 인재난을 겪어야 했으며, 또한 자신을 포함한 교수진들에 대한 관계 당국의 사상통제와 검열을 겪어야 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용설과 최명학은 의료상업화는 모두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의료국영론에는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이용설은 의료국영론을 비판하면서 병원의 대형화와 의료인력의 전문화에 대비하고자 하였고, 이는 미군정의 6년제 의과대학 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최명학은 의료국영론에 공감을 표시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최명학은 북한을 대표하는 의학자였고, 정권 인수에 참여했던 중요 책임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의료국영론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의료국영론의 지지자들은 5년제 의과대학과 다양한 형태의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동조했다. 북한의 사상

통제와 검열 속에서 최명학은 선교병원에서 활동한 이력을 스스로 지워야 했고, 선교병원에서의 활동이력을 감추기 위해 3·1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른 경력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의 사상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최명학은 ‘진보적 민주주의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삶에 충실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용설 약력	최명학 약력
1895 평안남도 희천 출생	1898. 3 함경남도 함흥 출생
1910. 4 숭실중학교 입학	1913. 3 함흥영신보통학교 졸업
1913. 4 숭실전문학교 입학	1914. 4-1916. 3 함흥영생중학교 수학
1915. 4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입학	1917. 3 함흥 영생학교 졸업
1919. 3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졸업	1917. 4 함흥 제혜의원 서기 근무
1920-22 북경협화의학원 인턴 및 외과 레지던트 수련	1922-26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수학 및 졸업
1922. 8-1924. 8 세브란스병원 외과 조수	1927. 4-1931. 1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유학
1924. 9-1925. 8 시카고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편입, 졸업	1931. 3 세브란스의전 생도감
1925. 8-1926. 9 뉴욕시 정형외과병원 수련	1932. 7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의학박사
1926. 9 세브란스의전 외과 조교수	1931. 7-1934.3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조교수
1937. 5 경성제대 의학부 약리학 교실 박사	1934.4-1936. 3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
1937. 7 수양동우회 사건 연루	1936. 4-1942.3 함흥 제혜병원 외과 과장
1940. 1 세브란스의전 사직, 이용설외과의원 개원	1942. 4-1945. 11. 29 함흥에서 최명학외과의원 개원
1945. 8 건국사회회 위원장	1945. 11. 30-1946. 8. 30 함흥의학전문학교 교장 겸 교수
1945. 9 미군정청 보건후생부장	1948. 8. 31 함흥의과대학 초대 학장
1948. 9 세브란스의과대학 제5대 학장	1952 과학원 원사
1950-54 제2대 국회의원	1961. 12 작고
1956-1962 세브란스병원장	
1993. 3 작고	

참고문헌

【자 료】

함흥의학전문학교(1946. 4), 「최명학 조사서」.

함흥의과대학(1948), 「최명학 교원 리력서」.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1932), 『1932年度 世富蘭僑聯合醫學專門學校 卒業
記念寫眞帖』,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_____ (1929), 『1929年度 世富蘭僑聯合醫學專門學校 卒業
記念寫眞帖』,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이용설(1977), 「나의 이력서」, 『한국일보』.

_____ (1956), 「나의 삼일학생운동 체험」, 『새벽』 3-1.

_____ (1947), 「보건후생행정에 대하여」, 『조선의학신보』 2.

이원규(1999), 『하늘은 아신다: 여천 이용설』, 서울: 현존사.

최응석(1947), 「현단계 보건행정의 근본적 임무」, 『조선의학신보』 2.

「李容高 判決文」, 『朝鮮總督府裁判所(京城覆審法院)』(1940. 8. 21), 관리번호
CJA0000588.

『국민보』

『동아일보』

『세브란스교우회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연구논저】

강명숙(2002), 「미군정기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와 그 의미」, 『한국교육사
학』 24-1.

김근배(2015), 「북한 함흥의과대학 교수진의 구성, 1946-48: 사상성과 전문성
의 불안한 공존」, 『의사학』 24-3.

_____ (2014),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의사되기: 해방 직후 북한의 의과대학
교원들을 중심으로」, 『의사학』 23-3.

- 김택중(2011), 『의사 전종휘의 생애와 사상: 한국 근대성의 한 초상』, 인제대학교 인문의학협동과정 의학박사논문.
- 박윤재·박형우(1998), 『북한의 의학교육제도 연구』, 『의사학』 7-1.
- 박형우(201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역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 박형우·여인석(1992), 『해부학자 최명학』, 『의사학』 1-1.
- 신규환·박윤재(2015), 『제중원 세브란스 이야기』, 서울: 역사공간.
- 신영진·김진혁(2014), 『최응석의 생애』, 『의사학』 23-3.
- 신유섭·신재의·유형식(2014), 『여천 이용설의 의료계몽과 학술활동』, 『연세 의사학』 17-1.
- 신좌섭(2001), 『군정기의 보건의료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 여인석·이현숙·김성수·신규환·박윤형·박윤재(2012), 『한국의학사』, 서울: 의료정책연구소.
- 여인석(2016), 『한국 근대 선교의료기관의 형성과 성격』, 『한국 근대의학의 탄생과 국가』(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편), 서울: 역사공간.
- 장운철(2005), 『북한 공산정권에 의한 함경도 교회의 피해: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종전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 허윤정·조영수(2015), 『일제하 캐나다 장로회의 선교의료와 조선인 의사: 성진과 함흥을 중심으로』, 『의사학』 24-3.
- _____ (2014), 『해방직후 북한 의학교육의 형성: 1945~1948』, 『의사학』 23-2.
- 森田芳夫(1964), 『朝鮮終戰の記録』, 嚴南堂書店.

원고 접수일: 2016년 12월 12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월 16일

계재 확정일: 2017년 2월 2일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Medical Education System After Liberation

— Focusing on the Lives and Opinions of Lee Yong-sul and Choi Myung-hak

Sihn, Kyu-hwan*

Lee Yong-sul and Choi Myung-hak were born in Pyeongyang and Hamheung respectively, both of which were key starting points for the Presbyterian missionary movement in North Korea. They studied at a mission school, converted to Christianity, and were strongly influenced by missionary medicine. They were then both accepted at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SUMC) with medical missionary's acquaintance. The activities of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at SUMC had a profound influence on their daily lives and careers. The main objective of the YMCA was Christian mission through social enlightenment and the creation of voluntary activities for rural communities. Although it was not political organization, the YMCA did form a relationship with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Consequently, as members of the YMCA, Lee Yong-sul and Choi Myung-hak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and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a turning point in their lives. Whereas Lee Yong-sul graduated from SUMC and went to Peking University Medical College to escape from being arrested, Choi Myung-hak studied at SUMC and Kyoto University after imprisonment. They became professors of SUMC in the 1930s, and took part in the mass education campaign for the health care of YMCA students at SUMC. They opened their clinic in Seoul and Hamheung respectively after resigning professors in the 1940s.

However, after the liberation, they each took a different path in life. Lee Yong-sul became the president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a minister in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He was a representative of right-wing groups and had adopted a leading role in health administration. After he resigned as minister, he took up the position of president of SUMC. As a director of health administration in Hamgyeong Namdo of North Korea, Choi Myung-hak made every effort to reconstruct health administration. He became the president of Hamheung Medical College and concentrated on the issue of medical education in North Korea. In this role, he had to deal with a serious shortage of talented professors and accept the control and censorship exer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y shared a similar view of medical commercialization and nationalization of the medical system, in very different circumstances. They disagreed with medical commercialization and were strongly committed to the nationalization of the medical system. However, their approach was different to that of the left wing's nationalization of the medical system, which they adapted through progressive ways and means.

